

여수교육지원청, '민·관·학' 한마음으로 모였다

'영어 문해력 향상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 운영

전남대, 우수한 영어학과 대학생들 30여명 지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에서는 30일 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3층)에서 여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본 업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학이 적극 협업하여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남대학교(여수 캠퍼스) 글로벌 교육원과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기부한 (주)알아이치코리아 퀄리티, 여수교육지원청이 기초학력을 향

상을 위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체결된 것이다.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글로벌 교육원과 여수교육지원청은 영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를 서로 협업하여 운영한다.

협업에 대한 일례로, 전남대학에서는 성실하고 우수한 영어학과 대학생들 30여명을 선발하여 관내 초등학교 2교(여수 양지초등학교, 여수 미평초등학교)에 '영어 문해력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고, 여수

교육지원청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해 사전 연수 및 월 1회 전담교사와의 정례회를 통해 교육적 피드백과 교통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다.

'영어 문해력 대학생 멘토링' 운영 시 기부 받은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수업방법은 1:1 대면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수업도 가능하도록 사전 연수를 마친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대 교육장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여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지원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향후 한글 문해력, 영어 문해력, 기초 수해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



여 기초학력 전방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식중독 예방 급식 위생관리 강화

내달 10일~24일까지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실시 예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6월23일부터 7월29일 까지 관내 공립유치원 및 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마련하고 오는 8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위생점검은 최근 티시도 사립유치원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발생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어름철 기운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개인위생 관리, 식재

료 검수, 조리 과정, 급식 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생활관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줄서기·소독제 사용·배식 방법 등도 점검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 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의 발생을 막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보성교육청, '소통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전교생 대상…대처능력 길러주는 교육 제공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 Wee 센터는 지난 29일 보성용정중학교 전교

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진

행하였다.

이번 예방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방적 교육방식은 지양하고, 학급단위의 집단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느낌을 공유하며, 학교폭력 상황 또는 또래 관계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친구들에게 더 잘 대해 주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대, (주)티이에프에 특허기술 이전

'에너지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이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산학협력단이 최근 주식회사 티이에프(대표이사 흥석 훈)와 '에너지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의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한 "에너지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은 정보통신공학전공 신창선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에너지 빅데이터로부터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의 이상이나 고장을 미리 진단 및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이전 계약은 정액기술료 3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주식회사 티이에프

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태양광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재생 에너지 ICT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향후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빅데이터·AI 기술을 융합하여 회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티이에프 흥석훈 대표는 "IT 솔루션과 에너지를 접목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특히 전라남도에 자리한 만큼 지역을 거점으로 국가의 인프리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 협약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위해

전남교육청이 30일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직업 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날 협약으로, 전남교육청은 신설되는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전문직업지도 인력을 배치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 및 일정관리, 현장 중심 진로프로그램 개발 협력, 전환교육 연계 등을 담당한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훈련센터 시설·설비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자리 창출 지원, 각종 연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전남발달훈련센터는 지난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이용자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순천시에 설립된다. 현재 순천시내 동신빌딩 3, 4층 임차가 완료된 상황이며 직업체험관·직업훈련관·행정지원관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센터 내 직업체험관은 의류, 마트, 사서, 사무행정, 요양보호, 호텔, 세탁 등 10개 직종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내 파트너사를 선정해 직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과정도 운영해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